엄홍길 산악회장, 스포츠영웅 선정

대한체육회 발표, 헌액식 11월 26일



엄홍길 조계종산악회장<사진>이 '2019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으로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0월 31일 제10차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를 열고 엄홍길 회장을 비롯해 쇼트트랙 전이경, 수영인 故조오련 등 후보 3인 중 엄홍길 회장을 '2019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엄홍길 회장은 세계 최초 8000미터 16좌를 완등해 불자들의 긍지를 세계적으로 높인 대표적 불자 산악인으로 2008년에는 '엄홍길휴먼재단' 을 설립해 네팔 등 개발도상국가의 교육 및 의료 지원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조계종 신도증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조계종산악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불자산악인의 조직확대 등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공로고 지난해에는 불자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2019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에 따른 헌액식은 11월 26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和音에 담아낸 울산불심

울산불교 합창경연대회 성황리 개최

울산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을 마련했다.

울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병호)는 11월 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제23회 붓다 페스티벌 울산불교 합창경연대회' 를 개최했다. 경연대회에는 정토사 정토합창단, 법륜사 마야합창단, 한마음선원합창단, 황룡사 아리아합창단, 조계종사암연합합창단, 백양사 삼보합창단, 월봉사 월광합창단, 정광사 바라합창단, BBS울산불교방송합창단 등 9개 합창단이 참가했다.

경연대회 대상은 조계종사암연합합창단이 받았으며 금상은 한마음선원합창단, 은상은 정광사 바라합창단, 동상은 법륜사 마야합창단, 인기상은 월봉사 월광합창단이 수상했다.

2부 행사에서는 울산시민을 위한 축하공연이 열렸다. 황룡사 나모라 소년소녀 어린이합창단, 국악인 김연진, 울산 미즈코러스, 가수 이용이 등이 특별출연해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울산불교 합창경연대회는 전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울산불교축제 중 하나"라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부처님 큰 가르침을 화음에 담아 온 누리에 음성공양을 올리는 여러분과 음성 공양을 받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신명나는 청년불교 조계사가 만듭니다"

Interview

김경순 제29대 조계사 청년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1월 9일 청년회장에 취임
반야율동단 등 다양한 활동
즐거운 신행 청년들에 제공

11월 9일 조계사 인근에 자리한 조계사 청년센터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그동안 27대와 28대 조계사 청년회를 맡아 이끌었던 한정민 회장의 이임과 29대 청년회를 맡을 김경순 회장의 취임이 이뤄진 것이다.

청년회를 이끄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된 김 회장은 활기찬 목소리로 신명나는 청년불교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순 회장은 조계사 청년회에서 진행하는 반야율동단에서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불자들의 일상을 브이로그로 보여주는 새 콘텐츠인 '청년불자 반야' 팀을 구성해 제작, 조계종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 1기로 위촉되기도 했다. 김경순 회장은 본인부터 사찰에서 즐겁게 놀며 불심을 키워왔기에 그만큼 다양한 활동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10년 전 처음 조계사에 왔을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였습니다. 사찰 청년회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친한 친구가 조계사 청년회를 하고 있었죠. 물론 그 친구는 곧 결혼하며 청년회 활동이 뜸해졌지만요."

김 회장은 이어 "저는 청년회 활동을 하기 전 '절' 이라고 하면 굉장히 엄숙한 곳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도반들과 함께 찬불가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행사 때마다 재밌게 함께 활동하다 보니 정이 들었다. 이젠 저한테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으로 바뀌었다. 저처럼 많은 청년들이 사찰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사찰 청년회, 사찰 신도회로 가입해 활동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조계사는 지난 10월에 조계사 청년센터를 개원했다. 아직 본격적인 공간 활용에는 나서고 있지 않지만 김 회장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청년포교운동의 터전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청년센터가 만들어져 정말 기쁘다.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편안히 드나들며 고민 상담도 하고 공부도, 놀이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그동안 노력해온 전임회장의 원력을 이어 즐거운 청년포교를 진행해보려고 한다. 조계사 청년회가 정말 많은 행사를 소화하는 만큼 다양한 행사에서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먼저 도반, 법우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어갈 예정"이라며 "처음에는 미숙한 부분이 많겠지만 도반들의 의견을 모아 젊은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출발하는 조계사 청년회를 응원해 주세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함께 '으쌰으쌰' 신명나게 활동하는 즐거운 청년회가 되도록 저부터 항상 웃으며 여러분을 맞을게요!"

무등시장 발전 돕는 탁발재현

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 스님
상인 애로사항 지자체에 전해



광주 무등시장에서 탁발을 재현하며 상인들의 소원지를 받은 스님들.

과거 민중과 소통하며 절 살림을 유지했던 옛 전통의 탁발의식이 재현돼 눈길을 끈다.

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대표 소운)는 11월 9일 광주 남구 무등시장에서 '제1회 전통탁발문화 재현행사' 를 개최하고, 일반시민들에게 탁발을 선보이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주민과 소통하는 희망나눔을 주제로 탁발재현과 주민들의 소원내용을 공양 받아 남구청에 전달해 민원해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후 1시 무등시장 상인회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1부 기념식, 2부 탁발시연, 3부 전달식, 축원 및 기원재가 이어졌다.

소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통 탁발행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위로와 공감, 나눔과 협력,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탁발의 의미를 되살려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부처님의 지혜로 많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이날 무등시장 상인회에 150만원, 남구청에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이웃돕기에 25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장 도성 스님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청장, 임승우 무등시장상인회장 등 2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기념식에 이어 스님 20여 명과 만장 · 풍물팀은 무등시장을 순회하며 탁발시연과 상인들의 공양의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탁발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담은 소원지 등을 남구청에 전달하고, 주민들과 함께 무등시장 발전을 기원하는 기도의식도 함께 열려 상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계 받아 참된 불자 되길"

불교법사위원회, 청송교도소 수계법회 개최



사단법인 전국교정교화 불교법사위원회(위원장 혜산)는 10월 23일 청송교도소에서 제2차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수용자 43명이 수계를 받았다. 수계법회에는 불교법사위 위원장 혜산 스님, 사무국장 대원 스님, 고문 법성 스님, 법사위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법회서 수용자들은 금강계단에서 오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구례군민 행복한 삶 기원

구례 사성암, 구례군에 성금과 백미 기탁



구례 사성암(주지 대진)은 11월 12일 구례군(군수 김순호)에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과 백미 2000kg을 전달하며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기원했다. 대진 스님은 "부디 작은 정성이나마 구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져 부처님의 가피 속에 늘 지역민들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성금과 백미 전달 취지를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응공조계종 창종 8주년 법회

종정 법운 스님 등 사부대중 200명 참석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11월 10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에서 창종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법등 스님, 원로의원 홍원 스님, 태고종 송정사 주지 송운 스님, 교육원장 경담 스님 등 사부대중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종사이운 및 기념식 등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